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1, No. 1 (2007) p.107~118

태투(Tattoo)와 문신(文身)에 관한 소비자인지도 및 유래에 나타난 차이점 비교

송남경 · 박숙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s' Perceptive Attitude and Origins of 'Tattoo' and 'Moonsin'

Nam-kyung Song · Sook-hyun Park†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2006. 5. 1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lities of the chaotic use of terms, 'tattoo' and 'moonsin', through the empirical field researches.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differences in the origins and the etymological meanings of 'tattoo' and 'moonsin' through examining related literatures. Clarifying the term definitions on 'tatto' and 'moonsin', this research is to help fashion consumers to use these terms discretely. In order to figure out consumers' perceptive attitude, this study has performed the questionnaire inquiry and has reached the result by analyzing the level of frequency of using the two terms.

1. The result of the term-preference inquiry tells that consumers prefer 'tattoo' to 'moosin'. However, the inquiry shows considerable number of them use the two terms indiscretely.

2. The study on the perceptions from the two terms shows: the term 'tattoo' is often related to positive images-fashionable, charming, and sexy, and the term 'moonsin' to negative ones-violent, anti-social, and demonic.

3. Both 'tattoo' and 'moonsin' shares the similarity in terms of engraving patterns on skin and coloring them.

4. 'Tattoo' i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Polynesian word 'tatau', which means 'artistic'. 'Tatau' is a kind of ethnic art practiced on Polynesian people's skin. The design patterns and practicing techniques are very similar to those on the Polynesian earthware called 'Lapita'.

Key words: Moonsin, Tattoo, Body art; 문신, 태두, 바디아트

I. 서 론

의복의 기원에 관한 이론 중 장식설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예는 신체에 그리거나 상처를 내거나, 변형을 가하여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바디아트이다. 신체를 장식한다는 의미에서 복식과 바디아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 되어왔다.

고대의 신체장식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적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족간의 구별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자신의 신분과 부의 정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종교적, 주술적 의식 등을 목적으로 신체(身體)를 채색하고 변형하며 상흔(傷痕), 제거, 태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park@star.ks.ac.kr

이러한 신체를 장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세기말을 거치면서 노출이 많은 섹시한 스타일의 의상 유행과 함께 신체에 그리거나 상처를 내거나 변형을 가하여 시각적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바디아트의 한 분야인 태투와 문신은 애호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피부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의 한 분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 태투와 문신의 가시성이 증가함에 따라 태투와 문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태투와 문신은 용어상 그 사용에 있어 엄밀한 정의가 없이 서로 같은 의미로 혹은 특별한 정의가 없이 혼돈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태투와 문신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태투의 미적특성 및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의 김임정(2001), 문정은(2003), 홍지현(2003) 등이 있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태투와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는 윤정해(1999), 이효진(1999), 김향수(2002), 정은숙, 김향수(2003) 등이 있었으나 태투와 문신에 관한 어원・의미・유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용어사용에 엄밀한 정의가 없어서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태투와 문신을 분야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태투와 문신의 용어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문헌중심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태투와 문신의 어원과 유래에 나타난 차이점을 밝히고, 태투와 문신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패션소비자들의 적절한 용어 사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Tattoo의 정의 및 유래

태투(tattoo)라는 용어는 18세기 영국인 탐험가이자 식민주의자였던 제임스 쿡에 의해 처음으로 서양 문화에 소개되었다. 태투의 어원은 폴리네시아어인 '타타우'(tatau)인데 이 '타타우'라는 말의 원래 뜻은 '예술적'이라는 의미와 '두드리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빅토리아, 1988/1988).

제임스 쿡이 '타타우'에서 유래된 '태투'라는 말을 서구에 소개하기 전에 서양에서도 피부에 상처를 내어 무언가를 새겨 넣는 행위의 명칭으로 '프릭(prick)' 혹은 '마크(mark)'라는 용어가 존재하였다. 태투의 어원이 되었던 '타타우'는 피부를 소재로 하는 민속예술(ethnic art)의 경향이 강했지만 '프릭' 혹은 '마크'는 새기고자 하는 내용의 문화적 의미보다는 날카로운 도구로 피부에 새기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일컫는 말일 뿐이었다(Governar, 1984). 이러한 예술적 특성을 지닌 폴리네시안 태투<그림 1>는 오늘날의 서양 바디아트 문화에 그 명칭과 내용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폴리네시안 태투가 서구에 소개되기 이전에도 서구는 나름대로 신체에 문양을 장식하는 문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앵글로색슨족의 침입 이전에 오늘날의 영국과 아일랜드 토착부족이었던 픽트족(the Pict)과 켈트족(the Celt)은 즐겨 몸에다 장식을 새겨 넣었으며, 특히 픽트족의 경우 그 부족의 명칭 자체가 '그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신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장식하는데 열심이었던 것 같다. 픽트족과 켈트족의 신체장식 문화는 그 이후 줄리어스 시저의 영국정벌을 통해 대륙으로 퍼져나가기는 했지만 그 후 오랫동안 서구 사회전체의 문화적 주목과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18세기 유럽은 식민주의자들의 물질적 탐욕과 이국적인 호기심으로 들끓고 있었다. 이때 제임스 쿡을 위시한 탐험가, 개척자,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소개된 폴리네시아의 태투문화는 이전에 존재했던 서구의 토착 신체장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흥미에 불을 지폈다. <그림 2>는 17세기 말 런던으로 들어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폴리네시아의 지올로 왕자이며, 그를 뒤덮은 문신의 온 몸의 문양은 뛰어난 기술과 솜씨로 신기하고 절묘하게 채색되거나 착색된 각양각색의 그림들로 가득차 있

<그림 1> Polynesian Nuva-Hiva섬 원주민 태투.
자료출처: Groning Karl, 1997.

<그림 2> 지울로 왕자. 자료출처: 스티브, 2000/2004

는데 각양각색의 선들과 원 기호들도 완벽한 균형과 조화미를 자랑한다.

폴리네시안 태투가 서구에 소개되기 전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했던 태투 문양은 토속적인 문화적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영국을 정복한 로마인들은 신체에 다양한 동물모양을 새기고 있는 켈트족이나 앵글로색슨족들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The art of tattooing", 2004). 로마인들이 전하는 켈트나 앵글로색슨족의 신체장식문양 특징은 구상적인 동물그림이 주를 이루고 있다.

18세기의 식민과 개척의 시기 동안 유럽으로 유입된 폴리네시안 태투 문화는 폴리네시안 태투의 기하학적 특징과 기독교적 특징 그리고 지역적 토속문화적 특징이 결합된 형태의 태투를 탄생시켰다. 로마인들이 정복하기 전의 동물문양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켈트적이면서도 폴리네시안적인 태투문양을 만들어 내게 되었으며, 기독교적 문화와 폴리네시안적인 태투문양은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서구적인 구상성과 기독교적 십자가 그리고 폴리네시아적인 기하학적 패턴이 모두 녹아든 태투 문양으로 발전되어 가게 되었다.

2. 우리나라 문신에 영향을 끼친 아시아 문신의 유래와 변천

'신체에 새긴 글자'라는 의미를 지닌 문신(文身)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림 3> 동물문양 Celtic Tattoo.
자료출처: The art of tattooing, 2004.

<그림 4> 기하학문양 Celtic Tattoo.
자료출처: The art of tattooing, 2004 .

그러나 중국의 문헌인 '삼국지(三國志)'의 동이전(東夷傳)이나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전(東夷傳)에서 삼한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나라 문신과 관련된 풍속에 관해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전파된 문신의 유래 및 변천 과정을 중국의 문헌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영향력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문신의 풍속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삼국지의 동이전과 후한서의 동이전에서 전하는 우리나라의 문신에 대한 풍속은 대부분 삼한시대에 풍속에 관한 것으로 주로 왜(倭)의 문신풍속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곳은 왜와 가까운 까닭에 왜의 풍속을 닮아 역시 몸뚱이에 바늘로 먹물을 넣어 그림을 그리는 자가 있다. 변진과 진한이 모두 섞여 산다. 그래서 성곽이나 의복이 모두 이들과 비슷하다. 하지만 풍속만은 현저히 다르다. 사람들의 모양은 모두 키가 크고 몸

이 장대하며 머리털이 아름답고 의복이 깨끗하다. 그러나 형벌과 벌은 엄하고 까다롭다. 나라가 왜와 가깝기 때문에 몸뚱이를 바늘로 찔러서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넣는 자가 있었다." 『후한서』 (後漢書), 동이전(東夷傳), 한(韓)(조현설, 2002)

후한서의 동이전에서 삼한을 소개하면서 언급하는 문신과 관련된 풍속에는 문신의 형태가 글자와 문양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형벌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형벌제도가 엄격했던 진(秦)나라 시대에 문신은 노예제의 다섯 가지 형벌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 범죄자의 얼굴에 '盜'나 '劫'과 같이 범죄의 죄목과 관련된 글자를 새겨 넣는 것을 자자형(刺字刑) 또은 묵형(墨刑)이라고 불렀으며, 얼굴에 새겨 그 형벌이 영원히 인식된다는 의미로 천형(天刑)이라고도 불렸다(서진, 1998). 이와 같은 형벌은 처벌의 사회적 의미와 그 지속성의 가혹함 때문에 반인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한때 폐지되기도 했지만 송대(宋代)에 이르러 다시 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송대의 자자형(刺字刑)은 체계화된 형벌로서 정비되었는데 새기는 글자의 위치, 크기, 글자의 종류 등이 13등급으로 규범화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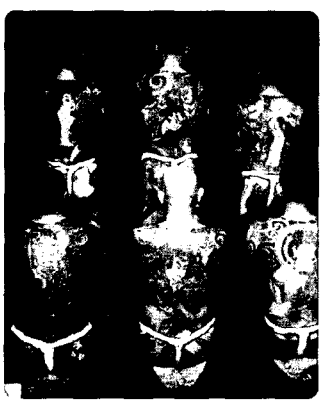
송나라 이후 자자형(刺字刑) 제왕에 따라 잠시 폐지된 적도 있었지만 법률화된 형벌로써 훨씬 더 체계적으로 활용되었다. 고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원대(元代)에는 자자형이 더욱 빈번히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정교해진 형벌로써 정비되었다. 고려후기에서 조선말기에 해당되는 시기인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도 이러한 자자형 혹은 묵형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 영향권에 놓여있었던 한반도의 왕조들 역시 중국에서 시행했던 것과 유사하게 자자형을 하나의 형벌로써 시행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 묘청의 난에 가담해서 끝까지 관군과 맞섰던 사람들에게 '西京逆賊'이라는 4글자를 입묵(立墨)하여 섬으로 유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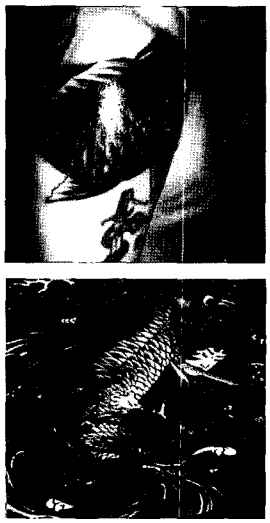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자자형 혹은 묵형은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도 폭넓게 사용되었는데 그 원인을 조선시대의 형법과 예법이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을 추종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의 자자형은 대명률에 근거하여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형하여 시행하였다.

일제시대는 이레즈미 혹은 호리모노라는 일본의 전통적 피부 예술문화와 야쿠자들의 영구적 피부장식이 조선의 문신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였다[1]. 논문의 성격상 용어가 가중 중요하고 민감하므로 '문신'이라는 말을 대단히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쿠자들의 문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야쿠자들의 피부장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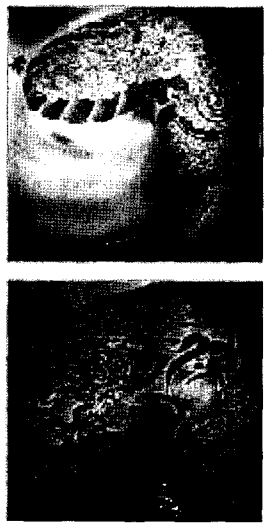
조선의 문신이 형벌적 성격이었다면 일본의 이레즈미나 야쿠자들의 피부장식은 자발적이거나 자신들이



<그림 5> 야쿠자 피부장식.
자료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6> 일본 전통 호리모노.
자료출처: http://www.tattookr.com



<그림 7> 일본 야쿠자 이레즈미.
자료출처: http://www.tattookr.com

특수한 조직이나 계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부심과 결속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야쿠자들의 피부장식 <그림 5>은 도쿠가와 막부 때에 금지되기도 했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술되었다. 야쿠자들은 피부장식을 통해서 아픔을 견디는 용기와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표현하려 했다.

일제시대를 통해 야쿠자들의 피부장식 전통은 조선의 자자형 문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형벌로서의 자자형 문신이 야쿠자의 그것과 같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북돋우기 위해 문신이 사용되었다. 그 형태도 이조시대와 같이 죄목을 적은 글귀만이 아닌 문양이나 그림도 시술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자형벌로서의 문자입묵 대신에 문양이나 구상형 그림을 피부에 새기게 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 일본의 전통문신인 호리모노<그림 6>나 이레즈미<그림 7>가 소개되고 난 이후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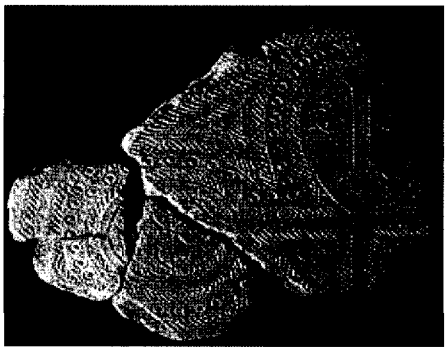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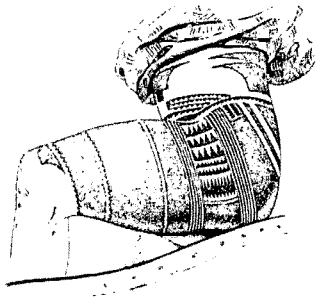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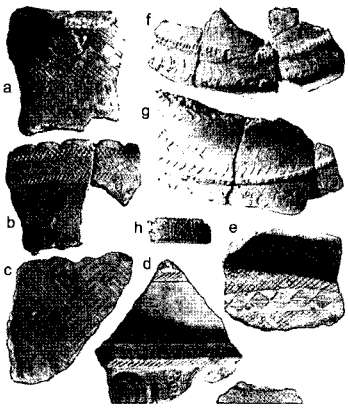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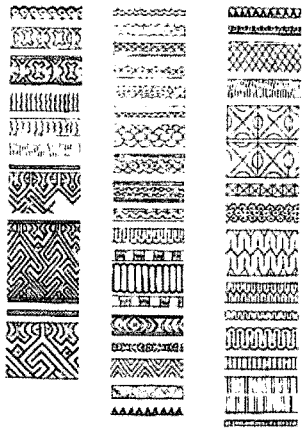
광복이후 우리나라의 피부장식 문화는 대단히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다. 조선시대 자자형 문신에 일본의 이레즈미와 호리모노의 특징들이 결합된 형태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자자형 문신이든 일본의 이레즈미든 이들의 공통된 문화적 성향은 사회의 어두운 집단이나 조직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3. Tattoo와 문신의 차이점과 유사성

1) 예술양식으로서의 태투

고대 폴리네시아인들의 태투는 현대 미술의 최고 걸작품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남태평양에 유

<표 1> 라피타 도기와 폴리네시아 태투에 나타난 문양의 유사성

라피타 도기	폴리네시아 태투
	
Lapita 도기 모양	폴리네시아 남성의 태투
	
Lapita 도기 파편 문양	폴리네시아 태두의 도식화

럽인들이 등장하기 전의 폴리네시아 태투는 고대 세계의 태투 중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을 자랑했다. 유독 폴리네시아인들의 태투가 발전을 이룬 까닭은 태평양섬들의 갇힌 지형, 자연의 적과 질병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역사·문화와 관계한다.

기원전 1200년에 원시 폴리네시아 문화가 태동·발전하기 시작하여 예수가 태어나기 얼마 전,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은 태평양 상의 약 100여개의 섬을 찾아내어 정착지로 개척하였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여행기록을 도기와 공예물의 형태로 남겨놓기 시작했고, 이것은 고고학 발굴지에서 출토되어 폴리네시아 태투 문양의 성격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었다. 출토된 '라피타'라는 도기들에는 V자형 그림, 서로 연결된 기하학적 패턴 등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그와 비슷한 태투의 문양들이 폴리네시아인이 사용하는 태투의 문양들과 비슷한 것으로 발견되었다(스티브, 2000/2004).

태투는 '둥둥 경고하는 소리 그리고 '톡톡 두드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원은 원래 폴리네시아 군도의 타히티(tahiti)언어 중에서 '예술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tatau'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예술적 의미를 가진 태투의 어원인 "타타우"의 문양과 생성기법은 <표 1>과 같이 "라피타" 도기에 새겨진 무늬와 폴리네시아인들의 피부에 새긴 타타우"의 문양과 대단히 유사하였다(Tattoos, 2000). 폴리네시아 통가의 전사들은 허리에서 무릎까지 삼각형 줄무늬 부분을 반복한 일련의 기하학적 패턴을 보이고 있어 라피타 도기의 기하학 문양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라피타 도기와 태투는 새기는 기법에 있어서도 둘 다 "뾰족한 것으로 찔러서"(puncture type technique) 행하는 것이다. 특히 도기의 가죽과 같은 질감이 피부와 유사했고 둘 다 모두 문양을 아주 촘촘히 뚫거나 점각(點刻)하는 바늘로 찌르는 형태의 기술을 사용하여 장식을 했으므로 도기장식과 태투는 동시에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기장식과 태투의 본질적인 차이는 태투에 있어서는 색료가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태투는 태평양 군도의 인체에 행하는 장식예술로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행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순수예술로는 대체로 인식되지 않았었다(Tattoos, 2000). 그러나 "타타우"와 폴리네시안 도기인 "라피타"의 유사성은 태투가 가진 본질적인 성격인 예술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스티브 길버트(Steve Gilbert)는 폴리네시아에서의 태투의 유래가 신체예술뿐만 아니라 의복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패션이나 민속예술(ethnic art)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래는 태투가 순수예술의 한 장르였다고 하였다. 태투는 처음부터 피부에 행해진 민속 예술의 한 분야였으며, 서구문화에 의해 수용된 이후에도 태투는 항상 "예술적인 미"라는 개념과 연관성을 유지하게 된다(스티브, 2000/2004).

태투가 가진 이러한 예술에 근거하는 발생적 특성은 현대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장식, 바디 페인팅, 메이크업, 프린팅, 무대분장을 포함하는 총제적인 신체예술의 한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던의 현대사회에서는 미술뿐만 아니라 브리꼴라쥬, 하이드리브, 혼성모방, 퓨전 등의 문화현상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으로 이러한 바디아트에 관련된 피부장식, 바디 페인팅, 메이크업, 프린팅, 무대분장 등에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표현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특히 태투는 신체예술의 컨셉에 맞게 장식성과 극적 효과를 주며 더욱 자유롭고 입체적인 형태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투가 세계의 모든 문화권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유행하게 된 것은 단순한 장식이나 표현의 도구가 아닌 예술의 한 분야로서 폭넓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 형벌에서 유래한 문신

우리나라의 문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한시대 이후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중국의 밀접한 영향을 받아왔으므로 한반도에서도 본격적인 국가체제가 확립되고 법률이 정비되었다. 당시 중국에서의 문신은 형벌의 수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때부터 문신을 과거의 풍속적·주술적 기능보다 사회적 기능인 형벌로서 더 많이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초기에 형벌의 한 종류로 문신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일부 양반들은 자신들이 거느린 종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낙인으로 형벌의 징표를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가장 가혹한 형은 얼굴에 글자를 새긴다는 자자형으로서 묵형 또는 천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시행했던 형벌로서의 문신은 세종실록(26년 1월 辛未條)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표 2> 조선시대 자자형의 종류와 자자위치

시행시기	刺字	刺字의 위치	범법행위
세종12년	盜內俯財物		대궐안의 은으로 된 기물을 훔친 자
			御帶의 금을 도용
세종25, 26년	竊盜	양쪽 뺨	절도죄 3범 이상자
		오른쪽 뺨	장물 1관 이상자, 2인 이상 도당을 지은 자, 소나 말을 도둑질한 초범
세종29년	强盜		산성을 점령하고 도적질한 자
	盜殺牛	오른팔	소를 도둑질하여 죽인 자
	盜殺馬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
	盜牛	초범: 오른팔 재범: 왼팔	소를 도둑질하되 죽이지 않은 자
	盜馬		말을 도둑질 하되 죽이지 않은 자
세조3년	盜官物		관물을 도용
성종5년	宰牛	얼굴	소를 죽인 자
	宰馬		말을 죽인 자
연산군10년	盜禁苑梨	팔	금원의 배를 도둑질한 자
연산군12년	逃奴	왼쪽 뺨	도망친 公, 私賤
	逃婢	오른쪽 뺨	
	逃亡	얼굴	

<그림 8> 영화 '秦頌'(2003)에 나타난 형벌로서의 문신.

수 있다.

단순 절도범에게는 '竊盜'라는 두자를 뺨에 새겼고, 훔친 물건이 소나 말일 경우는 '盜牛', '盜馬'라고 새겨 넣었다. 그리고 훔친 물건이 개인의 물건이 아닌 관의 것일 경우에는 '盜官物'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도 하였으며 훔친 물건의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문신을 새겨 넣었다.

형벌로서의 문신의 경우 기록으로만 전해져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나 이러한 문신에 대한 기록을 참고로 만들어진 영화를 통해 시술방법과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8>의 중국영화 '진송'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남녀에게 낙인찍는 형벌을 내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노예제 5형 중에서 문신을 가장 가벼운 형벌로 간주되었고, 한번 받으면 사람구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의 유교적 교화이념에 위배되는 형벌이었다.

문신은 현대에 이르러 아시아권에서 훨씬 많은 용도로 쓰여졌는데 특히 일본의 폭력조직이라는 소위 야쿠자들의 의식행위인 문신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불량배나 범죄자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범죄의 낙인으로 사용된 어둡고 은밀한 상징이었던 문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편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현대에는 문신이 패션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신선한 모티브나 장식으로 부상되고 있다.

3) 태투와 문신에 나타난 유사성 및 차이점

태투와 문신은 인간의 내적인 욕구 또는 자신의 이상가치를 신체에 표현한다는 한정적인 작법으로서 유사하지만, 그 어원의 유래와 시술방법에는 차이점

<표 3> 태투와 문신의 유사성과 차이점

구 분		태투(tattoo)	문신(文身)
차이점	어 원	폴리네시아어 '타타우(Tatau) '예술적', '두드리다'의 의미	신체에 새긴 글자(字) 글자자체로서 의미 전달
	유 래	· 응용미술로서의 폴리네시아 민속도기인 라피타(Lapita) 문양에서 유래 · Tatau는 민속예술(Ethnic art)의 경향이 강했으며 Tatau의 문양과 생성기법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발전해온 라피타(Lapita)라는 도기(陶器)의 장식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임. 따라서 Tatau와 Lapita의 유사성은 태투가 순수예술에서 비롯된 장식임을 알려준다.	· 징벌적 기능으로 타인에게 인지 되었을 때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벌의 종류에서 유래 · 우리나라 문신의 유래와 역사는 국가체제 정비와 함께 형벌로서 시작됨 조선조에 나타난 문신을 살펴보면 주로 형벌의 내용을 얼굴 등의 피부에 새겨서 표시함.
유사성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부어 무언가를 새기는 시술형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한 태투와 문신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간략히 정리한 표는 <표 3>과 같다.

태투의 어원은 원래 폴리네시아어로 '예술적' 또는 '두드리다'라는 의미의 '타타우'에서 파생한 말이다. Tatau는 민속예술(ethnic art)의 경향이 강했으며 tatau의 문양과 생성기법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발전해온 라피타(lapita)라는 도기(陶器)의 장식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tatau와 lapita의 유사성은 태투가 순수예술에서 비롯된 장식임을 알려준다.

또한 문신은 신체에 새긴 글자(字)로서 글자자체로서 그 의미를 전달한다. 문신은 징벌적 기능으로 타인에게 인지 되었을 때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벌의 종류에서 유래하였는데 우리나라 문신의 유래와 역사는 국가체제 정비와 함께 형벌로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조선조에 나타난 문신을 살펴보면 주로 형벌의 내용을 얼굴 등의 피부에 새겨서 표시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문신은 서양의 태투와는 그 형태와 기능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태투와 문신은 피부 밑으로 색소를 넣어 무늬를 영구히 새겨 넣는 방법을 사용하며, 현대에는 그 대부분이 일렉트로닉 태투머신(electronic tattoo machine)에 의해 제작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신체의 해당 부위에 원하는 문양을 그린 뒤, 색소를 적신 바늘로 문양의 윤곽을 따라 찌르거나 물감을 묻힌 실과 바늘로 문양의 윤곽을 따라 꿰매어서 완성하였다.

이러한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부어 무언가를 새기는 시술의 형태는 문신과 태투가 유사성을 보이지만, 피부에 새기는 문양의 형태와 그 기능에 있어서는 문신이 서양의 태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 Tattoo와 문신의 유행현상

이성을 강조하던 모던시대에서 감성과 정서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던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현대의 패션시스템은 비주얼 광고 등을 이용하여 인체와 섹슈얼리티를 성적인 이미지로 상품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인체가 상품화의 도구가 되어 인체의 노출과 인체곡선을 강조하는 의상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인체의 노출이 성의 상품화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자신감과 성적 건강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열린가슴 클리비지룩...자신감+섹시미 과시", 2003). 오늘날 인체는 점점 즐기기 위한 성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으며 인체의 모든 부위가 성감대로 노출되었다. 이는 인체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인체는 감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과거에는 단지 남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태였지만, 현대에는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여성들의 의사표현 등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의복 착용과 욕구가 우선시되었고,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표현의 자유가 증가됨에 따라 과감한 직·간접적인 성적매력의 표현이 증가하였다. 인간은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따라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비침, 밀착 등의 방법을 통해 성적매력을 표현하여 왔다.

현대 패션에서는 노출이 극대화되면서 노출을 위한 노출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패션에서는 성적 매력을 지닌 신체의 일부를 장식함으로써 눈에 잘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은폐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에로스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복식의 에로틱한 무드는 신체의 각 부위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태투룩을 통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인체의 선정적인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에로틱함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현대 복식디자인에서 매우 보편화된 방법으로, 선정적인 신체 부위를 태투로 장식하여 이성의 관심을 얻으려는 태투 본연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 태투룩으로 드러나는 인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에로틱한 정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간혹 선정적인 신체 부위가 태투에 의해 강조되기도 하고, 태투 모티프가 사용된 브리프나 스타킹 등을 통해 에로틱한 정서가 극대화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금기와 혐오의 대상이었다. 문신 하면 흔히 '조폭'이 연상되고, 가끔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문신<그림 9>을 새기는 파렴치한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동안 폭력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문신이 일반인들의 기호품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대중문화의 발전과 IMF 등의 경제위기로 인해 육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육체는 하나의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화장, 성형, 얼짱 등의 용어로 충분히 설명된다. 몸에 페인팅이나 문신하는 것을 꺼려왔던 우리 사회에 월드컵을 계기로 그 터부가 깨지면서 당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에 스티커형 문신을 붙이거나, 태극 문양의 보디 페인팅을 하는 것이 유행했다. 식물성 염료를 사용해 열흘 정도 지속되는 헤너(henna) 문신 등이 인기를 끌었고, 자연스레 영구 문신을 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조폭의 문신과 달리 홍대앞 문화의 '헤나문신'이나 축구스타 안정환의 어깨태투<그림 10>는 문화적 기호로 작용하게 되었다("왜 흥분하냐고? 재미있잖아", 2005). 또한 태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는 유행을 선도하는 연예인들의 비중이 컸다. 가수 이효리<그림 11>의 태투는 섹시함과 터프함을 상징("이효리, '히프 문신'도 섹시터프", 2006)하였고, 영화배우 김민정이 '음란서생'의 영화포스터에서 나비 문양의 태투를 보여주었다(그림 12).

최근 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출현은 문신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서울 종로나 신촌, 강남 등지의 거리에는 스티커 문신이나 헤나 문신을 판매하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해수욕장에서도 '문신이벤트'를 곧잘 벌이곤 한다. 바야흐로 문신이 하나의 패션 유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문신엔 인간의 본능 담겨 있다", 2004). 따라서 문화의 기호와 상징으로 자리잡은 태투는 패션의 유행과 더불어 변화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해 가고 있으므로 더욱 관심이 증대 되어야 한다.

<그림 9> 병역면제를 받기위한 불법 문신.
자료출처: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

<그림 10> 축구선수 안정환 어깨문신.
자료출처: http://imagesearch.naver

<그림 11> 가수 이효리.
자료출처: http://gonews.com

<그림 12> 영화배우 김민정.
자료출처: http://movie.daum.net

III. Tattoo와 문신의 용어 및 이미지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태투와 문신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성인(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04년 7월 25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22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불성실한 답변 및 무응답 항목이 많은 18부를 제외시킨 20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태투와 문신 용어에 관한 인지도 2문항, 태투와 문신에 관한 이미지 인지도 2문항, 태투와 문신의 선호도 2문항, 인구 통계학적 특성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소비자 인지도의 조사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의 태투와 문신의 용어에 관한 문항 중 '태투, 문신, 헤나, 크리스탈, 스티커, 에어브러쉬와 같은 피부장식관련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0%에 해당되는 121명이 들어 보았다고 했으며, 3%에 해당되는 6명이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을, 그리고 37%에 해당되는 75명이 일부 들어 보았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 97%가 피부장식과 관련된 용어를 들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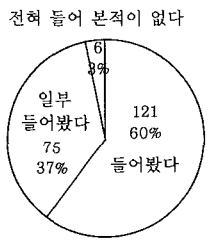
또한 <표 5>의 태투와 문신이 동일한 용어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71%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12%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대다수가 태투와 문신이 동일한 용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태투와 문신 중 어떤 용어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태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 문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표 7>의 패션이나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자신이 만일 피부에 문양이나 디자인을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시술을 할 경우 그것을 '태투'와 '문신'중 어떤 용어로 부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188명인 93%가 '태투'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패션적인 기능의 피부장식인 경우 소비자들은 '태투'라는 용어를 문신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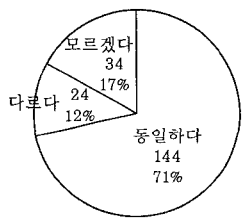
태투와 문신에 관한 이미지 조사에서는 태투와 문신을 동일한 의미로 인식한 집단도 용어에 따른 긍정적 · 부정적 이미지 인지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태투와 문신은 동일한 용어라고 인식한 집단과 동일한 용어가 아니라고 인식한 집단 모두를 포함하여

<표 4> 태투와 문신 관련 용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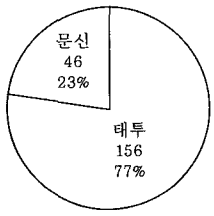
들어봤다	121(60)
일부 들어봤다	75(37)
전혀 들어 본적이 없다	6(3)

<표 5> 태투와 문신 용어의 동일성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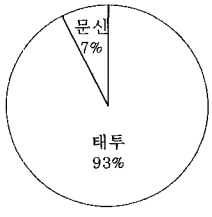
동일하다	144(71)
다르다	24(12)
모르겠다	34(17)

<표 6> 태투와 문신 용어의 선호도



태두	156(77)
문신	46(23)

<표 7> 패션 · 미용목적 용어 선호도



태투	188(93)
문신	14(7)

<표 8> 태투에 관한 이미지 (N=202)

긍정적 이미지	이국적인	22(11)
	매력적인	37(18)
	패셔너블한	43(21)
	섹시한	34(17)
	발랄한	24(12)
	합 계	160(79)
부정적 이미지	폭력적인	12(6)
	반사회적인	10(5)
	동성애적인	9(4.5)
	악마적인	6(3)
	불결한	5(2.5)
	합 계	42(21)
총 계	202(100)	

<표 9> 문신에 관한 이미지 (N=202)

긍정적 이미지	이국적인	10(5)
	매력적인	5(2.5)
	패셔너블한	8(4)
	섹시한	6(3)
	발랄한	5(2.5)
	합 계	34(17)
부정적 이미지	폭력적인	53(26)
	반사회적인	39(19)
	동성애적	24(12)
	악마적인	28(14)
	불결한	24(12)
	합 계	168(83)
총 계	202(100)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태투'라는 용어와 연관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이 '패셔너블한'(12%)과 '매력적인'(18%)의 항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과 연계된 항목인 '이국적인', '섹시한', '발랄한'과 같은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관된 응답인 '불결한', '악마적인', '동성애적인', '반사회적인', '폭력적인'것과 같은 항목에는 비교적 적은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태투'라는 용어와 연관된 이미지 문항에서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은 79%대 21%로 긍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대중매체를 통한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이나 패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은 긍정적 이미지를 높게 인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신'이라는 용어와 연관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이 '반사회적'(19%)과 '폭력적인'(26%)의 항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과 연계된 항목인 '불결한', '악마적인', '동성애적인', '반사회적인', '폭력적인',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와 연관된 '이국적인', '매력적인', '패셔너블한', '섹시한', '발랄한'과 같은 항목에는 적은 응답빈도수를 보였다. 따라서 '문신'이라는 용어와 연관된 이미지 문항에서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17% 대 83%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뉴스나 신문을 통하여 주로 조직폭력배나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집단을 통해 보여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태투와 문신에 관한 용어사용 실태 및 어원과 유래에 관한 차이점을 규명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태투와 문신에 관한 용어 선호도 조사 결과 문신보다는 태투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어의 동일성 문항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태투와 문신이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조사 결과 태투는 패셔너블한, 매력적인, 섹시한, 발랄한, 이국적인 이미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태투가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이나 패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에서 더 높게 인지된 것으로 보인다.

문신은 폭력적인, 반사회적인, 악마적인, 동성애적인과 불결한 이미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신이 주로 뉴스나 신문을 통하여 조직폭력배나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집단을 통해 보여져왔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에서 더 높게 인지된 것으로 보인다.

3. 태투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부어 무언가를 새기는 시술형태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나타낸다.

4. 태투와 문신에 나타난 차이점은 태투는 폴리네시아 라피타 도기문양에서 유래된 순수미술의 한 형태로부터 발전하여 장식이나 통과 의례와 같은 긍정적인 의식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문신은 징벌적 기능

을 가진 형벌의 한 종류에서 유래하여 현재의 미용문신으로까지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태투'에 비해 '문신(文身)'은 그 어원에서 '신체에 글자를 새긴다'는 뜻으로 신체에 형벌을 새겨서 표시하는 징벌적 기능에 보다 직접적인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문신'이라는 용어가 패션으로서의 신체장식을 언급하는 용어로는 그 기능면이나, 어원적인 면에서나, 그 형태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이다.

소비자들의 반응에 있어서도 '태투'와 '문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태투'가 패션과 연관된 용어로 보다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태투와 문신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도 태투가 미학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고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신체장식을 패션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신체장식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립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혼용되고 있는 '태투'와 '문신'중에서 '태투'를 패션적 용도의 신체장식을 지칭하는 포괄적 패션용어로 수용해서 사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임정. (2001).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향수. (2002). *패션에 있어서의 보디페인팅과 따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향수. (2003). *패션에 있어서의 보디페인팅과 따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두산 대백과사전 Encyber. (2002). *안정환 검색.* 자료검색일 2005, 5. 16, 자료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문신엔 인간의 본능 담겨 있다. (2004, 7. 16). *문화일보.* 자료검색일 2004, 9. 16, 자료출처 http://news.media.daum.net

문정은. (2003).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지역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빅토리아, 에빈. (1988). *신체장식.* 임숙자 옮김 (1988). 서울: 경춘사.

서진. (1989). *고대 형벌과 형구.* 중국제남: 산동교육출판사.

세종실록 26년 1월 辛未條. (1444).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Retrieved March 6, 2006, from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Tree=1

스티브, 길버트. (2000). Tattoo History. 이순호 옮김 (2004).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서울: 르네상스.

열린 가슴 클리비지룩...자신감+섹시미 과시. (2003, 5. 7). *스포츠투데이.* 자료검색일 2004, 9. 16, 자료출처 http://www.stoo.com

왜 흥분하냐고? 재미있잖아. (2005, 10. 11). *dongA.com.* 자료검색일 2006, 3. 6,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윤정혜. (199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투룩.*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효리, '히프 문신'도 섹시터프. (2006, 2. 10). *고뉴스* 자료검색일 2006, 3. 6, 자료출처 http://news.media.daum.net

이효진. (1999).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52-68.

정은숙. 김향수. (2003). Tattoo의 패션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53*(2), 153-169.

조현설. (2002). 동아시아 문신의 유래와 그 변이에 관한 시론. *한국민속학, 35,* 151-173.

피부인가 도화지인가 '문신 열풍', (2003, 6. 19). *dongA.com.* 자료검색일 2006, 3. 6,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한국문신클럽. (2002). *문신 검색.* 자료검색일 2006, 3. 6, 자료출처 http://www.tattookr.com

홍지현. (200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문신 유형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daum 영화. (2006). *음란서생 검색.* 자료검색일 2005, 5. 16, 자료출처 http://movie.daum.net

Governar, A. B. (1984). *Issues in the Documentation of Tattooing in the Western World.* Diss. U of Texas at Dollas, 9.

Groning, K. (1997). *Decorated skin.* Thames and Hudson, 13. Tattoos. (2000 April 21). Retrieved March 6, 2006, from http://www.samoa.co.uk/tattoos.html

Tattoos. (2000, April 21). *Samoan Sensation.* Retrieved March 6, 2006, from http://www.samoa.co.uk/tattoos.html.

The art of tattooing. (2004, April 25). *Celticgrounds.com.* Retrieved March 6, 2006, from http://www.celticgrounds.com/chapters/c-tattoo.htm